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5년도 표어

교회, 세상의 소망(벤전 2:9~12)

행동지침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어느 때까지니이까?

(시편 13:1-6)

시편 13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에 관한 말로 시작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으로 받았다는 느낌은 심리적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이럴 때 인간은 영적으로 비통한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1. 저절간 갈등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1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타까운 형편에 처했을 때 그대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과 사자굴에 있을 때에도 그들을 건져내신 분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 나타난 현실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믿고 있는 하나님과 경험 하는 하나님이 다른 것이 문제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해주시실 것은 알겠는데 언제 구원하시렵니까?’라고 갈등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라는 말은 1절과 2절에서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갈등이 길어지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당하는 소외를 견디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다는 생각으로 소망의 끝이 보이지 않아 몸부림칩니다.

다윗이 절망한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축복은 사라지고 이제는 불행만 계속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히 사라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괴로워합니다.

엘리아 선지자도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소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아 선지자가 살기보다 죽기를 원했을 때 그가 가장 절망했던 것은 그들 둘러싼 원수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자 그는 “나만 남았다”(왕상 19:10)고 말했습니다.

2. 간절한 기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3절).

‘언제까지입니까?’라고 외치고만 있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5절). 다윗은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신앙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5절).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부모 사랑이 아무리 크고, 부부간의 사랑이 아무리 지극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6절).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도 절망의 커튼을 걷고 보면 축복의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심판을 연기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후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기 전에는 절망의 크기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절망이 심하면 심할수록 주님을 찾는 일은 더해져야 합니다. 다윗은 절망의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멀어졌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다윗은 제발 자신을 생각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다윗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고, 말씀을 주실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느낌 속에서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합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 기도도 응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이므로 원수가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켰다는 말이 되므로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원수

들이 승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영적인 잠을 자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 구원에 대한 기쁨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5절).

기도하는 사람은 믿어야 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따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자신의 행복을 총괄하여 하나님의 은덕이라고 했습니다. 은덕은 기대보다 많은 응답, 업적보다 큰 포상, 그릇보다 넘치는 은혜를 말합니다.

사람의 불만은 받아야 할 만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생깁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다윗이 불평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성도에게도 고민과 갈등이 없을 수 없으나 그것들을 기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순교자가 된 사람들도 “우리 피를 값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계 6:10)라고 외쳤습니다. 순교자가 이렇게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심판은 연기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 계시록 22장에서 속히 오실 것을 세 번이나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도 절망의 커튼을 걷고 보면 축복의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심판을 연기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해 교회봉사 지원할 때

10월 30일(주) 지원서 접수 마감

2006년 한 해 동안 교회 각 부서에서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의 지원을 돕기 위해 교회봉사 지원서를 주보에 삽지로 넣었다.

우리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으로 교육부서, 찬양대 그리고 기타 부서들이 운영되어 전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3대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다. 내년에도 모든 부서에서 성도들의 봉사가 요청되고 있다. 본인이 받은 달란트대로 더욱 열심히 봉사하여 받

은 것 이상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2006년 교회봉사 지원서는 사무국에서 접수 받고 있다. 봉사지원서를 분실한 성도들도 사무국에서 배부 받으면 된다.

접수 마감 10월30일(주)까지 충분한 기도로 준비하여 은사대로 지원하도록 한다.

소집회실 의자 리모델링

501,502,503,602 호실

교회는 현재 찬양대 연습실과 교회학교 집회실로 사용되고 있는 501호, 502호, 503호 602호실에 비치된 의자를 리모델링하였다.

이 의자는 논현동과 반포동 구예배당에서부터 계속 사용하여 온 것으로 딱딱하여 오래 앉아 있기에 불편하였다. 이에 따라 현당을 앞두고 위의 4개실에 비치된 의자를 본당에 비치된 의자와 흡사한 품격있는 의자로 리모델링하였다.

그러나 천으로 등받이와 바닥을 마무리하다보니 음료를 흘리면 세탁을 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음료수는 식당에서 마음껏 드시고 집회실에서는 온전히 기도하고 연습하고 예배드리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전도회 · 선교회 총회

11월 중순까지

우리교회는 새해일꾼을 세우기 위해 이미 준비에 들어갔다. 전도회와 선교회 그리고 권사회, 살롬권사회, 스데반회 총회를 가급적 11월 중순까지 마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각 지회의 장은 부서의 장을 겸하지 않고 1인1부서 봉사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팀파니 입하(入荷)

우리교회는 가장 중요하고(the most momentous) 가장 긴급한(the most urgent)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the most glorious)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지난 주 아담스사의 professional 팀파니를 들여왔다.

장엄하고 우렁찬 북소리와 함께 하나님께 최선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다.

11월은 찬양으로 넘친다

새문안, 영락, 소망교회 찬양대 초청 찬양제가 11월13일(주일) 오후 5시에 준비되어 있다.

우리교회 임마누엘 찬양대(대장 신용식 장로)가 준비한다.

특별연습시간은 10월29일(토), 11월5일(토), 12일(토) 오후 5시 501호실에서 연습하기로 하였다.

이번 행사에 대·청부 젊은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11월20일(주일) 오후 5시에는 서울교회 미래 주인공이 될 중·고등부, 대학·청년부가 주관하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우리교회의 미래 주인공들이 현당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14가지 행사의 꽃은 11월25일(금) 오후 7시에 우리교회 모든 찬양대원들이 함께 하는 연합찬양대 찬양Festival이다. 이종윤 목사가 작시하고 박정선 장로가 작곡한 칸타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는 연습시간을 11월5일(토), 12일(토), 19일(토), 24일(목) 연합으로 6시 502호실에서 준비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행사전야제로 11월26일(토) 오후 5시 젊은들의 합성으로 현당 전야에 찬양과 감사로 가득 채울 것이다.

현당감사 14대 행사-연합찬양제 초청교회 찬양대 소개

소망교회의 베다니 성가대

이번 주는 연합 찬양제 초청교회 마지막 순서로 소망 교회의 베다니 성가대를 소개한다.

소망교회는 1977년 8월, 11명의 성도가 곡선희 목사님과 삼일기도회 모임을 가짐으로 시작하여 같은 해 10월 한 성도의 가정을 예배처소로 삼아 교회를 창립하였고, 이듬해 6월 상가 한 층을 빌려 예배장소를 옮긴 후 불과 30년이 안된 지금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형교회로 성장하였다.

우리교회와는 같은 교단, 강남노회 소속으로 소망교회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 교회로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의 현당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

이번 초청연합찬양제에 참가하는 베다니 성가대는 1부 예배를 담당하고 있으며 1부 예배가 오전 7시 30분, 매우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85명의 성가대원이 봉사하고 있다.

지휘자 박창훈 집사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합창 지휘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91년부터 지금까지 15년째 베다니 성가대를 지휘하면서 성가대원들의 숭고한 신앙과 목숨을 바칠만한 열심에 큰 은혜를 받으며 매주일 가르치러 갔다

가 오히려 배우고 돌아온다고 베다니 성가대를 자랑한다.

박창훈 집사님은 찬양에는 반드시 예배정신이 깃들여져 있어야 한다는 철칙을 가지고 성경에 근거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 현재 장신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성남시립합창단 감독 겸 상임지휘자로서 99년에는 해마다 교회가 연합하여 드리는 헨델의 메시아를 지휘한바 있다.

베다니 성가대는 이번 초청찬양제에 '내가 산을 향하여', '모퉁이돌'의 두 곡을 가지고 참가한다. 특별히 '모퉁이돌'은 서울교회가 예수님 되신 모퉁이 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곡하였다고 한다.

박창훈 집사님은 이종윤 목사님께서 중현교회에서 시무하실 때 지휘한 적이 있어 이번 찬양제에 초청 받은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종윤 목사님과 같은 분이 계신 것은 한국교회에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아 성도들이 차고 넘쳐 하나님의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허숙(편집부)



소망교회전경

제16기 전도학교 개강

오늘 오후 2시 802호

오늘부터 전도학교 제16기 과정이 개강된다.

전도학교는 매주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802호에서 열리며 교육기간은 12주이고 서명철 목사(대학부 담당)가 강사로 서게 된다.

전도학교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란다. 자세한 문의는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서울교회 현당감사 어린이 백일장 · 사생대회 입상작

6층 복도에 전시 중

서울교회 현당감사 어린이 백일장 · 사생대회 입상작들을 6층 복도에서 전시하고 있다.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들의 순진무구한 마음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상하고 어린이들이 바르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칭찬하고 기도해주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하나님의 시간표

박윤혜 권사(7교구)



지난 수요일 저녁예배시간, 카자흐스탄에 파송될 이은준 선교사님께서 고려인들의 후손들과 함께 사역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러일 전쟁 당시, 러시아에 살고 있던 고려인들에게 사흘치의 식량과 입을 옷만을 챙겨 광장으로 모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들은 즉시 기차에 태워져 카자흐스탄으로 이송되었는데 이유는 단 하나, 일본인과 외양이 비슷하다는 것 때문이었다. 영하 40도가 넘는 혹한의 추위 속, 황량한 벌판 위로 짐짝처럼 버려진 고려인들은 땅을 파고 들어가 잠을 청하고 얼어붙은 땅과 얼음을 깨며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절반의 고려인들이 얼어 죽거나 굶어죽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카자흐스탄은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고 무슬림의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 한국인 선교사들은 그 고려인들의 도움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

요컨대 하나님의 시간표에 고려인들은 바로 이 시간을 위해 반세기 전 카자흐로 보내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는, 비참한 희생양이었던 내 동포들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시간표상에서는 부름 받은 일꾼들이요, 씨 뿌리는 자들이 된 것이다.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그는 형제와 아비를 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위해 "지금, 여기"에 놓여 있음을 백분 깨달아 알았고 그것을 행했다.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는, 그 오랜 시간과 찌지 못할 상처와 되돌릴 수 없는 과거를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이다.

이화여고 3학년 재학 시절, 여름방학 동안 그만 한 달 여를 앓게 되어 보충수업을 할 수 없게 되었던 적이 있다. 개학 후에는 성적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당시 인기학과였던 약학과 지방생이었던 나는 전공을 화학으로 바꾸고 이화여대 사범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처음엔 선생님이었던 남편(고 나희주 장로)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했었는데, 남편의 소천 후 다시 학교의 부름을 받아 교단에 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훨씬 후의 일까지 계획되어 있었던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려 애썼던 남편의 빈자리를 제게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사랑하느 남편과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절묘한 것이어서 당시에는 고통 중에 깨닫지 못하나 지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게 된다. 헌당을 눈앞에 둔 지금, 우리 서울교회의 설립 시 겪었던 시련과 고통도 이제와 돌아보니 아름다운 교회에서 날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위한 시간표에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헌당의 이때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주의 역사하신 안에서 우리들을 요묘한 방법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거나 두려운 중에 있을 때, 눈앞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믿음이 내 평생에,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 동안 내내 흔들리지 않길 기도한다.

사명자대회150일연속기도-선교를 위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조범연 선교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사랑의 수고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증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단이 밀 가까부르듯 하려고 청구할 때 시몬 베드로를 위해 깨어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이름은 지식의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의 사욕을 추구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가련한 영혼들, 거짓 신들의 사악한 사술에 매인 영혼들, 스스로 진리를 거부하는 저 완악한 영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회개와 죄 용서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며,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땅 끝에서도 성취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등부 총동원주일을 마치고

한대석(고등부 교사)

이제 제법 가을의 분위기를 내는 날씨 속에서 2005년 10월 16일 많은 학생들이 고등부 총동원주일로 고등부실을 찾아 왔습니다. 그 동안 재적으로만 남아 있던 학생들과 기도로 준비했던 많은 태신자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직 중간고사가 덜 끝난 학교들이 있었기에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걱정을 그냥 실없는 저의 믿음 부족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고등부실에 packed 학생들의 모습은 분명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도 좋으셨을 겁니다.

NLC(New Life in Christ / 고등부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 된 행사는 오정식 목사님의 말씀선포와 환영인사로 고등부 친구들을 맞이했습니다.

금식기도로 준비하던 NLC학생들의 "맛 잃은 소금"의 특순은 세상의 그 어떤 것 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세상에서 더 이상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닌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자고 외쳤습니다.

고등부 소개 영상은 은혜롭게 마쳤던 지난 여름수련회

의 영상과 고등부의 그 동안의 활동상을 보여주었고, 다시 한 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별 친교의 시간에는 새친구를 환영하고 이제는 주일을 꼭 지키고, 고등부에서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학교 1만 명 시대를 위해서 전하고 기도하는 고등부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간구했던 인연에는 못 미쳤지만, 저희들의 게으름으로 생각하고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는 고등부가 될 것을 다짐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005 사명자 24시간 연속기도표 (10.23~29)

기도지원자는 1층 현황판에 이름을 적으십시오.

일시	0~1	1~2	2~3	3~4	4~5	5~7	7~8	8~9	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23~24		
10/23	주일	주일예배																							
24	월	이완영 이명순 이영철 김미향	홍성주	탁경준 황정옥	박분옥 탁경준 황정옥	박분옥 탁경준 이남성 방승철 남성경	김상은 홍순복 권성자 송미경	이안순 김찬진 허현숙 김수호	배은희 윤갑관 오중례 김웅숙	전인화 원복순 손성실	임인자	조인숙	임성남 손명근	홍희순 손명근	장국희 최소의	남옥진 김정희 신정순	남옥진 김정희 신정순	임법창 이정애 유태서	윤숙희 김경옥 정정숙	김경옥 정정숙 윤숙희 이재현 이영애	서경애 정은순 김찬진	이은자 김경애 이윤희	이윤희 손현순 정봉금		
25	화	이변성 이명순 이영철 김미향	임훈규	류종관 서준식	류종관 서준식 박분옥	류종관 서준식 박분옥 이남성	이해순	이해순	김찬진 송동선 고정숙 이순혜 박경희	김규희 최성희 김희진 전광환 노정숙	김규희 최성희 김희진 전광환 노정숙	김규희 최성희 김희진 노정숙	한성옥	박정임 진경옥	한영순 정연택	백영자	백영자	최성옥 권정철 이영일	김영일 강낙훈	남태순 배재승	남태순 서경애	남태순 서경애	남태순 서경애	김상태	
26	수	윤찬오 이명순 이영철 김미향 이태정 한자남	김광신	김영택 양인수	김영택 양인수 박분옥	김영택 양인수 이남성 이현주 김숙자 박분옥	이신애 김옥순 박미숙 최경미	이순금 박명자	함은희 전수자 이남숙 최준숙 박길희	송인숙 한영식	수요 1부	박정준 정애신 유봉희 유봉여 이영선 박순영	김인숙 김지선 방승희 우상태	박정임 김미희 남경희 차승일 김성섭	김찬진 권순단	신정순	장국희 신경순 박재숙 변민중 박인남 이영숙	한영순 최소희	수요 2부	남태순	김유선 서경애 김순덕 박동희 전돈 최길옥	김순덕 박동희 김미경	김미경 김순덕		
27	목	오정수 이영철 김미향 김미향 김미향 김미향	유승준 최양진	이성오 최지순	박분옥 이성호 최지순 백혜숙	박분옥 최지순 최지순 최지순 최지순	최미경 진명자 최은석 김인실	최미경 진명자 최은석 김인실	진명자 최미경 김찬진 김명자	최미경 김명자 신선주	서순영	강아름 서순영	김인숙	박정임 김중자	유숙인 이숙	유숙인 이숙	유성남 최광성	유성남 최광성	이순희 조동환	남정일	서경애 김예중 김미경 최윤정	서순희 유성임 김예중 최윤정	차영도 정미현 김화순 차도훈		
28	금	노문환 이명순 이영철 김미향	신용식	오광환 손태기	박분옥 오광환 손태기 신영범 서수녀	오광환 손태기 이남성 박분옥 최현민	이신애 김옥순	황정임 임종자 장기숙 김치덕	임종자 송경옥 장기숙 이영아 황정임	전순순 박영자 이정남 신명자	나기태	김인숙	방승희	윤정식 박정임	김진영	엄금순 이정임	엄금순 이정임	김예환 서상근 김남희 김영희	김남옥 김영희	문분순 심상철	금요기도	차영도 차도훈 정미현 김화순			
29	토	장병무 이명순 이영철 김미향	조정식	이학주 정인주	박분옥 이학주 정인주	이학주 이남성 정인주 박분옥	조영자 이사라 김명숙 남정미	송미경 김수원 김지인	정원조 김정순 박신자 이봉삼 이준자	정원조 여인숙	여인숙	조일영	조일영	김정란	김정란	대학 청년부 기도	대학 청년부 기도	대학 청년부 기도	대학 청년부 기도	대학 청년부 기도	대학 청년부 기도	대학 청년부 기도	대학 청년부 기도	대학 청년부 기도	이상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최희정(중등부 교사)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생활을 한지 10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항상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셨다. 그간 체계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다면, 지금 더 좋은 모습으로 봉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부족함 가운데 중등부 교사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중등부 교사로서 처음 세워주셨을 때 과연 내가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중등부 봉사를 통해서 믿음을 더욱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능력도 채워주셨다.

내가 중등부 학생들에게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 항상 하는 말은

첫째, 모태신앙을 갖게 해주신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라는 것. 모태신앙은 남보다 앞선 출발선과 하나님의 커다란 보호 안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과 Code가 맞지 않는다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될 것이다.

중등부 때는 중학생 신분대로 믿음분량 또한 균형이 맞아야 한다. 아직도 믿음의 분량이 유아기를 못 벗어났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해도 사용하지 못하지 않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을 미리 준비하고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중등부에서는 평소 마음에 품고 있었던 전도와 싶은 친구들의 대신자 카드 작성과 반별 연속기도회 모임, 지금은 잠깐 교회를 떠나 있는 친구들을 위한 잃은 양 찾기와 초청 잔치를 기도로 준비하며, 매일 저녁 10시에 중등부 선생님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중등부와 맡겨주신 학생들을 위해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 크게 쓰임 받아 자신의 삶을 Sola Deo Gloria!!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중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오늘 11기 찬양대양성반 개강 오후 1시30분 601호에서

찬양대양성반 11기 과정이 오늘 601호에서 시작된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란다.

동정

■ (독남) 이상호 이사내 성도 가정(3교구 이학주 집사 이은옥 권사 외손자)

(독녀) 임대중 남재은 성도 가정(9교구)

■ 주간식당 봉사: 베드로선교회(10월23일)
바울 선교회(10월30일)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X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을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 (http://www.c-highway.com)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사명자대회(10월9일부터 50일간)기간동안 5대 기도제목 성취되도록
2. 교회학교 학생 1만명 이상, 100명 이상 선교사, 사랑의 집 건설케 하소서
3. 11월27일 헌당식, 암송필사성경봉헌, 선교사 파송 은혜롭게 되도록
4.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